

노동조합 가입 폭등

이제 곧, 2,000명 조합원

최근 10년간 노동조합 가입자 수 최고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 신규 가입자 수가 300명을 넘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총 조합원수가 최근 10년간 최고인 1,800명을 넘어 1,9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도 매일같이 노동조합 가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2,000 조합원 달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병원과 관리자에게 억눌려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임금체불 문제는 억눌려 있던 간호사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간호사들은 노동조합의 체불임금 소급투쟁에 적극 동참했다. 그리고 파업까지 이어진 투쟁의 성과로 입사 5년 미만 간호사들에게 빼앗긴 임금을 지급하였고 지금까지도 간호사들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을 넘어선 투쟁, 그리고 지금은 노동조합 가입이 대세

2017년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의 성과로 6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상당한 호응 속에 정규직 전환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가입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망설이는 시대는 지났다. 노사합의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조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9년 1분기 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어떠한 고용불안도 없다. 무기계약직도 이제 용기를 내서 노동조합으로 뭉치자. 병원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휴가와 복지를 더 이상 빼앗지 못하도록 과반노조 만들기에 함께 하자.



내 삶과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노동조합 가입!

오늘! 노동조합에 가입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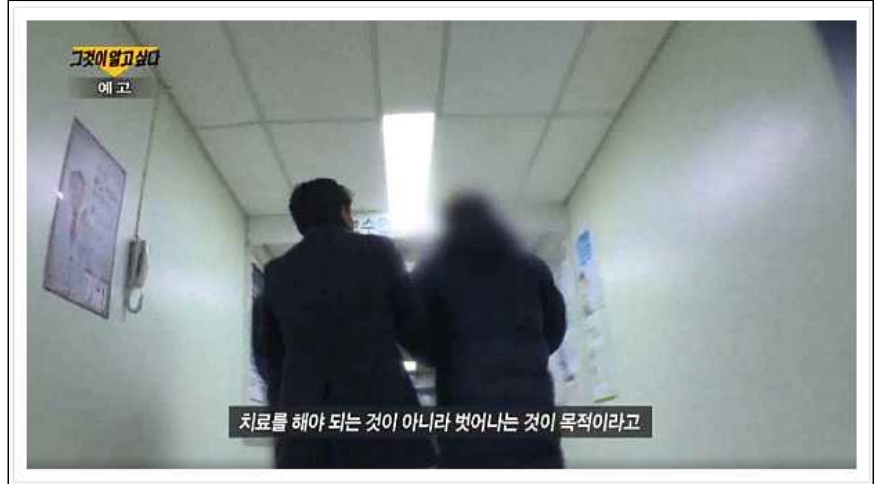
가입문의 : 노동조합 사무실 (☎ 2072-3440)

서울대병원, 재벌의 전유물이 되다

▶ 서울대병원,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지난 1월 13일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에 대해 방송하였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석연치 않은 치료 과정과 특혜, 그리고 한화그룹과 서울대병원 및 보라매병원과의 이상한 거래는 공공병원의 중심인 서울대병원마저 재벌의 전유물이 되 버렸다는 확신이 들게 하였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이외의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집행결정 이후에 한화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이 방송을 본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서울대병원의 비리는 지난 서창석 병원장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어디까지냐며 거센 분노를 쏟아내었다.

보라매병원 간호사, L-tube 삽입 중 손가락 절단 사고

▶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던 병원의 예견된 사고

지난 1월 13일 오전 보라매병원 병동에서 환자에게 L-tube 삽입술(비위관삽입술)을 시행하다 환자에게 손가락이 물려 마디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해당 간호사는 즉시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중이지만 향후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노동조합은 의사에서 간호사에게 이관 된 업무 중 L-tube 삽입술과 시술 동의서 등의 업무에 대해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리고 원래대로 의사에게 업무를 이관 하고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사고는 터졌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다시 한 번 간호사가 시행하는 L-tube 삽입술의 적법성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를 취재한 기자는 복지부로부터 ‘L-tube 삽입술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병원 측은 복지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즉각 의사 인력을 충원하고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L-tube 삽입술 의사에게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간호사의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